

P-36

CIDR를 이용한 한우 공란우의 과배란처리 간격이 회수난자의 성상에 미치는 영향

손동수, 최창용, 한만희, 최선호, 조상래, 김현종, 김영근, 김일화*

축산연구소 가축유전자원시험장, *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

우수한 공란우의 반복채란으로 다수의 수정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배란처리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나 성선자극호르몬의 빈번한 처리는 난소의 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다. 본 연구는 한우에서 CIDR를 이용한 과배란처리에서 적절한 과배란처리 간격을 조사하기 실시하였다. 공란우는 한우 경산우로 직장검사로서 자궁 및 난소질환이 없는 개체를 22두 선발하였다. 과배란처리를 위하여 임의의 발정주기(Day 0)에 황체호르몬제제인 CIDR® PLUS(InterAg, New Zealand)를 질내삽입하고 Day 6부터 Folltropin-V® (Vetrepharm, Canada) 40mg을 4일간 12시간 간격으로 분할주사하였으며, Day 9에 dinoprost(Lutalyse™, Upjohn, USA) 25mg을 주사하고 CIDR® PLUS를 제거하였다. Day 11에 GnRH제제인 Gonadorelin (Fertagyl, Intervet, Holland) 100µg의 투여와 정액 2스트로로 인공수정하고 12시간후 2차 인공수정을 하여 과배란을 유도하였으며, 수정란회수는 2차 인공수정후 6~7일에 실시하였다. 1차 과배란처리 및 수정란 회수 후, 2차 처리시에 한우 공란우는 3군으로 구분되었다. 1차 수정란회수 후, 제 1군은 9~10일째, 제 2군은 16~37일, 제 3군은 44~75일에 각각 1차 과배란처리시와 동일한 일정으로 과배란처리를 시작하여 반복처리 간격이 4주, 5~8주 및 9~13주 간격이 되게 하였으며, 채란후 수정란의 성상을 비교하였다. 4주 간격으로 반복 과배란처리시는 1차 처리에 비해 미수정란 수가 증가된 반면 이식가능 수정란의 수가 감소되었다. 그러나 5~8주 및 9~13주간격의 반복처리시에는 미수정란 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식가능 수정란 수는 1차 처리에 비해 증가되었으며, 4주간격 처리군보다 이식가능 수정란 수가 많았다. 따라서 한우에서 CIDR를 이용한 반복 과배란처리시 4주 간격보다는 5~8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.

Keywords: 한우, 과배란, 반복처리, 수정란, 이식가능란